

## 교직이수와 복수전공을 동시에 하기까지



12학년 송은영

2학년 2학기에 들어서 나는 복수전공과 교직이수를 같이 하게 되었다. 본전공, 복수전공, 교직이수를 한꺼번에 하기까지에는 오랫동안 수없이 고민을 했다. '팬히 3개 다 신청했다가 다 망하면 어쩌지.T.T'란 생각이 제일 크게 자리했다.

원래 처음에는 복수전공만 하려고 했다.

하지만 늘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교사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기회를 놓치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교직이수도 하게 되었다.

처음에는 본전공, 복수전공, 교직이수 3과목을 한꺼번에 수업 들으려니 힘들었다. 나혼자 욕심내서 무모한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너무 우왕좌왕 하는 느낌이랄까.

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고 복수전공도 그렇고, 교직이수도 그렇고 모두 내 적성에 맞다보니 수업이 재밌어졌고 흥미로웠다. 덕분에 걸들지 않고 적응도 할 수 있게 되었다.

우리과에서는 교직이수 신청자가 점점 줄고있다. 하지만 나는 정말 선생님이 꿈이 아니더라도, 아니었더라도 교직이수를 추천하고 싶다. 정

## ■ 복수전공과 후기

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이 많다. 리더쉽을 기를수있는 기회와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.

또한 조별활동을 통해 배려하고 이해하는 자세도 배울 수 있는 좋은 수업이었다.

정말 기회가 된다면 교직이수를 꼭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^^